

# 문화 향토적 정서·禪 화풍에 담으면 동서양 초월한 곡선의 미학 탄생

### 유럽 전시서 '거장' 호칭 받은 불자 화백 임무상 씨

지난 7월 파리 셀렉티브 화랑에서 초대전을 연 임무상 작가는 현지에서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셀렉티브 화랑은 그의 그림에서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임무상의 화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폭력성이나 절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회화적인 면에서나 창조적 면에서나 그 어떤 주장도 펼치지 않는다. 대신 화가 임무상은 대상을 관찰하고, 느끼며 그리고 내면적으로 감응하고 있다. 이런 그의 특성은 커다란 겸손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화폭 위아래 자연에 대한 엄청난 마법을 만들어 놓는다"



임무상 화백은 매일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자신의 하루를 연다. 이런 신행활동이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 천연재료 이용한 염료로

#### 민족정서 담은 작품 표현

#### 유럽 관람객들에게 호평

그래서 그의 곡선은 굽이굽이진 산천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초가와 기와, 도자기, 한복의 흐르는 선, 버선모양, 장구모양은 물론 심지어는 모지 형태에서까지 그 곡선의 미학을 이끌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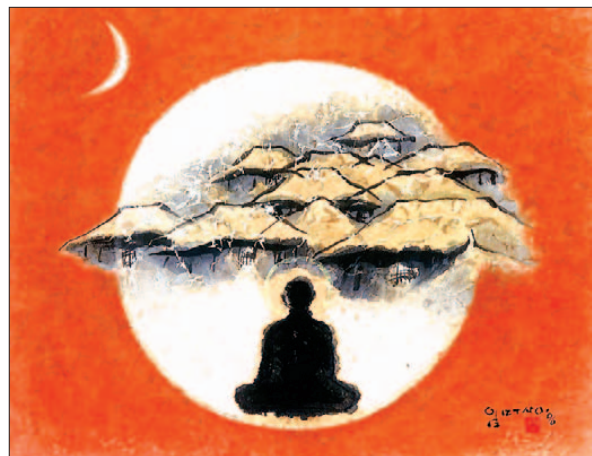
1941년 생으로 70이 넘는 노장이 꾸준히 작품활동은 물론 해외전시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외고 지장기도를 한다. 이런 규칙적인 신행생활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작품 세계를 더 깊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 안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대학을 다니며 동국대 장흥석 교수의 (피안으로 가는 언덕)을 읽으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신실한 불자가 됐죠. 기도는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가족과 친지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원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 그림 속에 모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저와 제 작품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치겠다는 임무상 작가는 올해 중국 베이징 전시를 앞두고 있다. "저는 지난 한 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 작품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리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이태리까지 가면서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성과를 아는 이들이 드물어요. 앞으로 국가나 기업이 글로벌 아티스트에 대한 후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좀더 많은 작가들이 국제무대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삼강 임무상(林茂相) 화백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1991년 첫 개인전(롯데미술관)을 시작으로 열한 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300여 회의 주요 그룹전 및 초대전과 한국미술세계화전(LA, New York, Paris), 한류 4인의 개성전(일본), 한국미술12인 초대전(독일), 취리히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다. 지난해 파리 셀렉티브와 이태리 아타시마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hjs@ryunbul.com**

이렇듯 임 씨의 작품은 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담은 곡선공통체 미학에서 탄생했다. "초가집 등 숲의 터전에서부터 무덤까지 곡선문화권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동글고 완만한 곡선미의 운치에 동화돼 있다고 봐요. 아마도 지리적 풍토와 자연환경에서 이런 문화가 비롯됐겠죠. 제 작품은 전반적으로 곡선문화에 대한 예찬과 내재된 공동체정신과의 함축관계를 재해석한 수묵의 모더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향토적 정서와 선의 정신을 작품에 반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왼쪽은 '염', 오른쪽은 '달마산미화사'



# 누각은 높고 종소리 하늘에서 퍼지네

아득한 시간 속 공덕의 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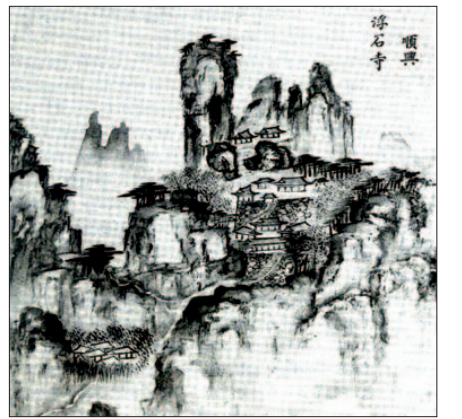
산사에서 읊은 선비들의 시는 풍경의 묘사와 인생의 이야기를 변연 시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시는 예나 지금이나 고도의 상징이다. 풍경의 묘사가 단순히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의의(意趣)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시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④ 주세봉과 부석사 ⑤



사진 오른쪽은 겸재정선의 교남명승첩에 그려진 부석사, 사진 왼쪽은 순흥 소수서원에 모셔진 주세봉 영정.



부석천년사(浮石千年寺) 평암학가산(平巖鶴駕山) 누거운우상(樓居雲雨上) 종동두우간(鐘動斗牛間) 고목분하형(古木分河形) 개암종옥란(開巖鍾玉蘭) 비관담불승(非關貪佛僧) 소쇄각강환(澗却忘還)

**천년의 절 부석사 평암학가산에 임했다. 누각은 구름과 비보다 높고 종소리는 두우 사이로 울려 퍼진다. 깎아 만든 나무로 나뉜 강은 아득하고 트인 절벽에서 한가로이 옥을 심네. 불교에 탐닉하여서가 아니라 시원하여 돌아감을 잊노라.**  
-주세봉 '부석사' <무릉잡고>원집 3권

주세봉은 이 오연정구를 통해 부석사의 긴 시간을 더듬고 있다. 수련(首聯)이라 분류하는 1구와 2구에서는 천년 고찰 부석사가 드넓은 지경(地境)을 배경으로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조망하는 세상은 참모 무궁하여 병풍 같은 소백의 연봉과 아스라한 산 너울들이 끝이 없다. 학가산은 안동의 진산을 이루는 산인데 높이가 해발 882미터다. 이 시에서 말하는 누각은 취원루일 것이다. 중생계를 굽어보는 누각을 구름과 비보다 높다고 표현한 것은 형상으로서의 누각의 높이이기보다는 부석사의 존귀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누각은 구름과 비보다 높고 종소리는 두우(斗牛) 사이로 울려 퍼진다고 했다. 동양의 천문학에서 별자리를 28 속(宿)으로 나누는데 그 8번째와 9번째에 해당하는 별이 각각 두성과 우성이다. 그러므로 종소리가 두우 사이로 울려 퍼진다는 것은 하늘높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 함련( 聯)의 두 구절에 누각과 종소리를 제재로 부석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깎아 만든 나무'는 앞의 학가산과 관련이 있다. 학가산에는 봉정사(鳳停寺)가 있다.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은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함께 가장 오래된 목조간판을 품은

다. 이 봉정사의 창건자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이다.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창건하고 나무를 깎아 봉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로 날려 보내서 나무 봉황이 내려앉은 자리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봉정사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멀리 학가산이 조망되는 풍경을 보면서 이 절을 처음 지은 의상 대사의 행적을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다음에 '트인 절벽에서 한가로이 옥을 심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옥을 심는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다. 한(漢) 나라 때의 효자 양공옹백(楊公雍伯)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릉산에 장사 지냈는데, 그곳은 척박하여 물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우물을 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품에서 옥돌 한 덩어리를 꺼내 주며 "땅에 심으면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는 옥돌을 땅에 심었는데 옥돌이 다섯 덩어리로 늘어나 그것으로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주세봉이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은 좋은 인연을 심는 절집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떠올린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이든 주세봉은 이 경연(頸聯)에서 의상대사의 고사를 통해 부석사의 아름다움과 사찰로서의 가치를 한 것 고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풍경 속에 숨은 뜻

그러나 주세봉은 미련(尾聯)에서 유학자로서의 자신은 불교에 탐닉해서가 아니라 시원하여 혹은 풍경이 좋아 돌아갈 줄 모른다고 시의 매듭을 짓는다. 선비로서의 입장이 분명한 셈인데 그의 다른 시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십일수리궐(十日愁離闕) 삼산희입루(三山喜入樓) 건곤포만상(乾坤包萬象) 호해속고주(湖海屬孤舟) 빈안유지절(賓雁猶知節) 농부이실추(農夫已失秋) 자참분함로(自慙分陝老) 하이교서후(何以教西 畝)

**열흘 동안 근심스런 대궐을 떠나 삼산에서 기쁘게 누각에 들렀도다. 하늘과 땅은 만가지 형상을 감사안았고 호수와 바다는 외로운 배에 붙었도다. 오는 기러기는 오히려 절기를 알건마는 농부는 이미 가을을 잃어버렸네. 스스로 두메산골 늙은이 신분을 부끄러워하니 어찌해서 서쪽마을을 가르치리오?**  
-주세봉 '취원루, 하봉상의 시에 차운하다' <무릉잡고> 별집 제4권

주세봉은 열흘 휴가를 얻어 부석사에 들렀던 것 같다. 그래서 흥겨운 마음으로 기쁘게 '삼산'의 누각에 들렀다. 삼산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산(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이니 부석사가 있는 봉황산이 태백과 소백의 양백지간에 자리한 봉황산에 있다는 점을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부석사를 찾은 주세봉은 가을의 정취를 설명하며 자신의 늙음을 성찰해 보는데, '어찌해서 불교(서쪽마을: 西 畝)를 가르치리오?' 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성리학자인 자신이 이미 늙어 도학(道學)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함이 부끄러운데 어찌 불교를 가르치겠는가 하는 반문이다. 그렇다고 주세봉이 부석사를 풍경으로만 본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풍경 속에 진실이 있고 시를 통해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योग미술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제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 장' 판매**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도로 만듭니다.**

**적하수도**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도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 (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